

셰브론, 이라크-쿠르드 대립 “불똥”

이라크, 유전개발 관련 인허가 취소 ... 쿠르드 정부와 계약철회 촉구

이라크 정부가 7월24일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Chevron)에 대해 이라크 유전 개발을 금지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라크 석유부는 “유전 개발과 관련해 셰브론이 취득한 모든 인허가를 취소한다”며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중앙정부와는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7월25일 조치는 셰브론이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와 북부 자치지역의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제재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셰브론은 7월19일 인디아 릴라이언스 석유기업으로부터 로비와 사트라 지역 유전개발권을 인수할 예정이며, 셰브론이 80%, 오스트리아 OMV이 20%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관할 구역의 석유에 대한 독자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라크의 모든 석유계약은 중앙정부를 통해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기업들과 쿠르드 자치정부 사이에 체결된 유전 탐사 및 개발 계약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10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6개 지역의 유전 탐사 계약을 체결한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ExxonMobil)은 5월30-31일 12개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 국제입찰에서 참가가 배제됐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엑손모빌의 계약이 동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쿠르드 자치정부는 계약동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25>